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March of 2015
Vol. 04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발행인** 송재관 **편집인** 임영석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www.medulsan.ac.kr

02 [인터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만들자" – 이철 울산대학교 총장 **04 [이달의 우수연구]** 역방향 대동맥박리 새 치료방침 제안
04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수정 핵심 역할 **05** 세계 최초, 뇌 신경세포 '안테나' 섬모 이상이 비만 원인 규명 **06** 자가포식 이용, 당뇨병 치료제 개발 새길 열어
07 [교과탐방] 의예과 1학년 교육과정 개편…인성적 측면 강조 **08 [학생코너]** 의대 실기 교육…임상 현장서 '호평'
10 [기고] 새로운 우리들의 보금자리 울산의대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11 [의대소식]** 의사의 길 入門…졸업 · 입학식 성료 '눈길'
12 제12회 대학원 의과학전공학위수여식 개최 **13** 김진호, 한덕종, 허수진 교수 정년 퇴임식 **14** 졸업생 의사국시시험 전체 의대 중 최상위 **15** 2015년 1학기 신임교수 세미나 개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인터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만들자"

이철 울산대학교 총장

"교육, 연구, 진료 등 어떤 부문이든 울산의대나 울산의대 출신들이 하는 것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울산대학교 이철 총장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 총장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 각자가 '나는 내 몫을 열심히 하고 있나? 또 바르게 잘하고 있나?' 라는 정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 토대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남의 탓, 병원 탓, 대학 탓을 하는데,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통 위해 노력

이 총장은 "의사로서 병원 보직을 맡았을 때는 익숙한 분야의 책임을 맡는 것이라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으나, 대학 총장 직책을 맡을 때는 심적인 부담이 컸다. 의대 교수 출신이라 총장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런 소리를 안 듣고자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이 총장은 "많은 리더들이, 또 구성원들이, 소통을 강조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찬성해주면 소통이 잘된다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 평소생각 실천한 총장 재임 4년

이 총장은 "병원장이든, 총장이든,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미션을 각인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핵심가치에 따라, 매일매일 실천을 통해서 목표를 실현하는 일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총장이 지난 4년 울산대에서 추진한 ▲대학 운영을 총장 중심이 아니라 교수, 전공, 학부,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강조한 일, ▲인성과 리더십 함양 교육을 위해 교양기초교육원과 아산리더십연구원을 설립한 일,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학과/학부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일,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국제화 교육, 정보활용 교육, 현장중심 교육 등을 강화한 일 등은 그의 평소 생각을 실천한 것으로 생각된다.

❖ 훌륭한 의사는 정도 지키며 협력하는 의사

이 총장은 훌륭한 의사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正道(정도)' 와 '協力(협력)' 을 제시하였다.

이 총장은 "개업의사의 길을 가든, 대학교수가 되든, 정도를 가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회 현실이 정도를 걷기 힘들게 하지만, 우리 울산의대 출신들만큼은 정도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을 잘 알고 잘하는 만능 의사는 없다. 진료에서나 연구에서나 잘 모르겠으면 배우는 자세로 그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상의하면 될 것이다. 선배든 후배든, 같은 의사이든 타직종 직원이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총장은 우리 울산의대 학생들이 투철한 윤리의식과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외에 앞으로 치열해질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영어 읽기/쓰기/말하기와 정보활용 능력을 갖추고, 대학 주관이든, 서클 주관이든 봉사활동에 참여해볼 것을 권하였다.

이 총장은 "이를 통해 우리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울산의대-울산대간 교류 필요… 기간보다 자세가 중요

울산의대와 울산대학교 다른 학과들과의 교류 확대에 대해 이 총장은 "의대 학생들끼리만 모여 6년을 함께 지내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폭 넓은 경험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송재관 학장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우선 예과 1학년부터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과목에 따라 강의를 함께 듣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의예과 학생들이 대학 내 서클에 많이 참여하고, 인문학 분야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어디서 얼마동안 보내느냐 보다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 "'엄마'로부터 독립하여 도전하고 노력하라"

이 총장은 울산대학교의 핵심가치인 '도전, 성취 그리고 나눔'(Rising to the Challenge, Sharing the Success)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 총장은 서울아산병원의 한 전공의의 어머니가 총장실에 전화를 하여 "우리 애가 대학원에 합격을 하였는데, 등록 마감일을 깜박하여 합격이 취소되었다는데 등록을 하게 해 달라"고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면서, "성인이 된 우리 의대생들이 이제부터는 우선 '엄마'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길은 자신이 찾아야 한다"며,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이룩한 것을 환자, 후배 동료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나누어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의사의 길도 가치 있고, 다른 길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길, 가치 있는 길, 꼭 해보고 싶은 길을 찾아 용감히 도전하라.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현실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인식 등을 뛰어 넘을 용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못 했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 저절로 존경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 "울산의대는 고마운 곳"

이 총장은 울산의대에 대해 "한마디로 고마운 곳, 나를 많이 가르쳐준 곳이다"고 설명을 시작하였다.

"울산의대는 아산재단이 의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따라서 울산의대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윤리적이어야 하고, 가난한 환자, 소외된 계층의 환자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보다 잘, 보다 빨리, 보다 경제적으로 고쳐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 특히 울산대, 울산의대와 협력병원들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도를 가려고 하며, 구성원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특징이다."

이 총장은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선후배,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많이 배웠다"며, "그래서 설립자와 재단, 동료 선후배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고, 의사 동료 선후배, 타 직종 직원들뿐 아니라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들 중에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렵고, 좌절한 경우도 있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가장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제몫을 하는 학생이나 졸업생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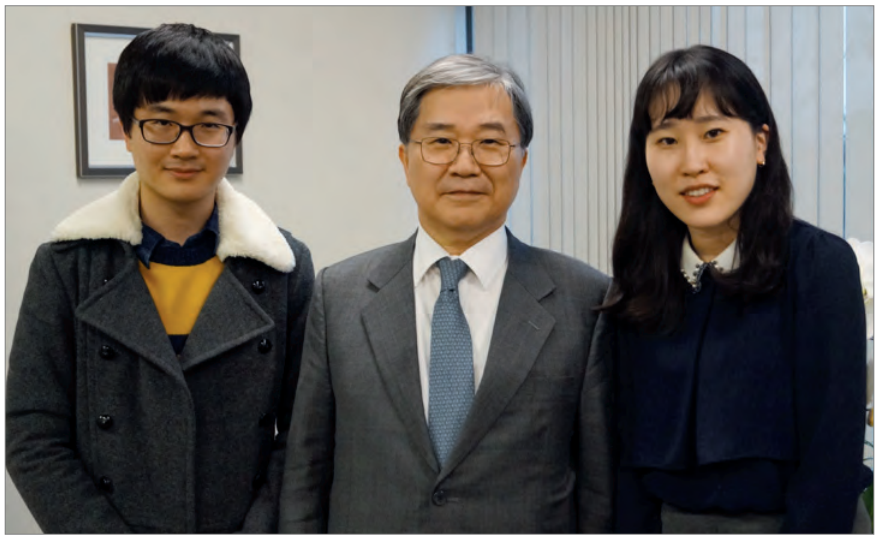
이 총장은 "이런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저런 처지였다면 과연 그들처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 울산의대의 브랜드 강화 대책

울산의대의 브랜드 강화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이 총장은 "수능 점수가 몇 점 높다 낮다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고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울산의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또 의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른 의대 출신들에 비해서 보다 실력있고 정도를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이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에는 100년이 넘었다는 의대들이 있지만 겨우 26년 밖에 안 된 우리 의대의 최근의 여러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다"며, "브랜드 강화 대책이니 전략이니 걱정하기보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으로 교수들은 교수들 나름대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다보면 어느새 세계 제일이라고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또 "우리 의대에는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 교수도 있다. 함께 분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달의 우수연구

역방향 대동맥박리 새 치료방침 제안

약물치료도 장기생존에 효과

송재관 교수

주석중 교수

김준범 교수

우리 의대 교수팀이 역방향 대동맥박리의 새로운 치료방침을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 흉부외과 주석중 · 김준범 교수팀이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동맥박리 환자 중 혈류의 역방향으로 대동맥박리가 일어난 49명을 분석한 결과, 일부 환자에서 수술보다 약물치료가 장기생존율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방향 대동맥박리 환자 중, 특정 조건이 만족된 환자 16명에게 수술 없이 약물치료를 했더니 5년 생존율이 100%로 나타나, 수술을 한 환자 33명의 5년 생존율 81.2% 내외 보다 더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치료 지침에 관해서 정확히 정립 되지 않던 역방향 대동맥박리 치료에 새로운 치료 방침을 제안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심장학회 공식학술지 써큘레이션(Circulation)에 게재됐다.

그동안 대동맥 박리가 일어난 위치에 따라 치료 지침이 달랐는데, 대동맥 궁을 기준으로 심장과 가까운 부분인 상행대동맥 박리는 수술을, 복부 쪽으로 뻗은 하행대동맥 박리는 약물치료를 원칙으로 했지만 역방향 대동맥박리는 마땅한 지침이 없었다.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대동맥박리를 CT등과 같은 최첨단 영상기법을 이용해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의 협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는 "대동맥박리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급증하는 응급질환이므로, 흉부를 칼로 찢는 듯하거나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경험이 많은 대동맥질환 전문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 후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동맥 박리란 심장과 연결돼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내벽이 찢어져, 혈액이 원래 흘러야하는 통로(대동맥 진강)가 아닌 내막과 중막 사이의 분리된 새로운 공간(가성 내강)에도 피가 흐르는 것으로,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대동맥 벽이 갈라지는 파열 직전의 매우 위험한 현상을 말한다.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수정 핵심 역할

승모판막 폐쇄 부전 '조기수술' 효과 증명

강덕현 교수

우리 의대 교수팀이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수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50세 이상의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관찰과 증상치료' 보다 '조기수술'을 하는 것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임상 결과를 〈미국심장학회지(JACC)〉 2014년 6월호를 통해 밝혔다.

특히 2014년 미국심장협회(AHA)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승모판 폐쇄 부전증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강 교수팀의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수술'의 적응증을 바꿔 세계 심장학계를 리드하는 한국 의료진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심장협회에서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장판막전문

클리닉을 갖추고 있으면서 심장판막 재건성형술의 예측 성공률이 95%이상, 수술 사망률이 1% 미만인 병원에서는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증 환자에게 증상이 없어도 우선적으로 조기수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승우 교수팀은 두 병원에서 지난 14년(1996~2009년) 동안 증상은 없지만 심하게 손상된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치료 받은 환자 61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조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94%에서 승모판을 통째로 교체하지 않고 환자의 승모판을 재건하는 승모판 성형술을 통해 폐쇄부전을 성공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수술 사망률이 없었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경과를 보였다.

강덕현 교수는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들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심잡음만 들릴 수도 있고, 가까운 동네병원에서도 청진기로 쉽게 심잡음을 확인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심장초음파를 통해 정확한 병의 진행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손상된 판막을 성형해주는 수술을 통해 평생 판막질환의 공포에서 해방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조기 수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연구 결과는 승모판 폐쇄부전증의 국내외 치료 지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증을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판막질환의 치료 성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 뇌 신경세포 '안테나' 섬모 이상이 비만 원인 규명

비만 등 대사증후군 치료제 · 식욕억제제 개발 중요 단서 제공

김민선 교수

내분비내과 김민선 교수팀과 가천대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이봉희 교수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인 뇌 시상하부의 섬모 길이가 비만 쥐에서 모두 짧아져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 비만 쥐에 렙틴을 투여한지 12시간이 지나자 섬모길이가 61%나 길어졌다.

렙틴을 주기 전 비만 쥐의 평균 섬모길이는 2.28㎛로 짧았지만, 렙틴 처리 6시간 경과 후 2.65㎛, 12시간 경과 후 3.72㎛로 길어진 것이다.

비만 쥐의 평균 섬모길이는 정상 쥐 5.5㎛(마이크로미터 · 100만분의 1m)에 비해 약 40% 짧은 3.3㎛였다. 특히 3㎛ 미만의 짧은 섬모비율이 정상 쥐는 전체 섬모 중 13%에 불과했지만 비만 쥐는 50%이상이었다.

교수팀은 동물의 몸은 배부르거나 배고프다는 포만, 기아 등의 신호를 뇌로 보내는데, 여러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인 신경세포 섬모가 짧아져 에너지 과잉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만이 아닌 정상 쥐의 시상하부 신경세포 섬모를 짧게 만들면, 섬모가 몸에서 보내는 포만 신호를 감지하지 못해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해 체중이 늘어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동안 일반적인 비만증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고, 대표적인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섬모 길이를 조절하여, 뇌 시상하부 신경세포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신호를 감지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증명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김민선 교수는 "비만이 몸에서 에너지 과잉 상태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섬모 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치료제, 식욕억제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섬모 장애가 발생하는 기전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초 · 임상의학 학술지 〈임상연구저널(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4년 5월호에 게재됐고, 〈네이처 리뷰 내분비학(Nature Reviews Endocrinology)〉에도 소개됐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의 뇌원천기술개발사업과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 임영석
편집위원회 위 원 : 김승후, 김남국, 도경현, 문덕복
박상형, 이주용, 정석훈, 허진원
학 생 편 집 위 원 : 최명은, 박소희, 정창진
객원기자겸 홍보자문위원 : 김영신

자가포식 이용, 당뇨병 치료제 개발 새길 열어

아밀로이드 축적 억제하는 자가포식 역할 규명

강상욱 교수

대학원의학과 강상욱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이명식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에서 관찰되는 아밀로이드 축적에 의한 2형 당뇨병의 발병을 억제하는 자가포식 기능을 규명해 눈길을 모았다. 또 자가포식이 결핍된 췌장소도 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축적, 당뇨병을 유발한 반면, 자가포식이 증진된 췌장소도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억제되고, 혈당이 개선됨을 밝혀, 향후 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의 축적 과정이나 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교수팀은 변성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자가포식작용이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여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에 착안하였고, 축적된 아밀로이드를 자가포식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상욱 교수는 "자가포식 조절제가 당뇨병 치료제로의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밀로이드 축적이 관찰되는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신경질환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연구실(Global Research Lab)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고, 연구결과는 기초·임상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4년 8월 1일자에 게재되었다.

[용어설명]

아밀로이드 : 세포 조직 내에 축적되는 불용성 단백질 덩어리로, 뇌 조직 내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발병하는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 아밀로이드성 질환.

2형 당뇨병 : 성인에서 흔히 나타나는 당뇨병으로 소아나 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1형 당뇨병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대사질환이며 경구 당뇨병약으로 치료한다. 2형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에서 췌장 소도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다.

자가포식 : 세포 내 손상된 분자나 세포소기관 등을 제거하는 정화작용으로 노화, 퇴행성 신경질환, 대사질환, 감염/면역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소식지 표지를 모집합니다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소식지가 표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모집합니다.
울산의대인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울산의대 소식지 표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최우수 표지를 선정, 수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의과대학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할 소식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　　상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울산의대인은 누구나
모집내용 : 사진, 그림 등 울산의대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울산의대 소식지 표지로 사용하면 좋을 소재
선　　정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홍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사　　용 : 격월로 발행되는 울산의대 소식지 표지 사용
수　　상 : 매년 최우수 표지를 선정, 수상 예정
기타문의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소식지
uucmnews@daum.net,
김영신 객원기자 : 010-3320-2624

기부 및 후원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써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기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문의 : 의과대학 교무연구팀 목현수
02-3010-4212, kyz32@ulsan.ac.kr

교과탐방

의예과 1학년 교육과정 개편…인성적 측면 강조

교양교육 확대로 다양한 학문 접할 기회 높여

우리 의대는 2015년부터 의예과 1학년의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한다.

개편의 주요 방향은 ▲교양교육의 확대 ▲인성교육의 강조 ▲수준별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과학 과정의 선택과정으로의 전환 등이다.

❖ 교양교육과정 강화 이유

교양교육과정 강화 이유는 우선 의과대학의 새 교육목표가 소통, 윤리, 창의의 리더십을 지닌 의료인 양성이라는 인성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교양교육이 학생들의 학점 따기 도구로 전락되고, 교양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의예과 및 의학과의 교육과정이 주로 자연과학 및 의학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 교육과정 편성 내용

이에 따른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양영역 = 영어회화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반편성을 하며, 일반교양교육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4개의 영역은 인성, 인문적 교양, 예술적 교양, 사회참여의 가치로 나눠진다. 인성영역은 인간관계, 리더쉽 관련 내용이다.

인문적 교양은 다시 2개로 나눠서, 글쓰기, 말하기, 제2외국어 영역과 종교, 윤리, 철학, 역사관련 영역으로 나눠지며, 예술적 교양영역은 음악, 미술, 체육 관련 항목들이다. 사회참여의 가치는 사회봉사와 관련한 영역이다.

▲전공영역=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의 기초과학 영역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과목은 본인의 수준에 따라 수강하여도 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다.

기존 유기화학은 필수과목으로 유지하며, 새롭게 개설되는 과목으로는 의학과 예술과 의학물리 과목이 있다.

의학과 예술은 합창 수업을 통해 협동과 단결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의학물리는 기초과학과 의학을 통합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이후 의과대학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로탐색세미나는 올해 대폭 수정하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의 일일 의사체험 및 병원의 8개 부서에서의 실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일 의사체험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동안 의사로서의 생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두번에 걸쳐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의 의사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의예과 1학년 교육과정 편성표는 아래와 같다.

의예과 1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1학기	2학기
교양 영역	영어회화 I 진로탐색세미나 4개 영역별 교양	영어회화 II 사회봉사 4개 영역별 교양
전공 영역	의학영어 의학개론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의학물리 의학과 예술 의료와 사회

투고를 기다립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에서는 울산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의 발전방향, 잘하는 점, 개선할 점 등 울산의대와 관련된 내용 중 소식지에 게재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내용은 소식지에 게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이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및 투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
객원기자 김영신
(uucmnews@daum.net,
010-3320-2624)

학생코너

의대 실기 교육…임상 현장서 '호평'

술기의 한계 극복, 일차 진료 기회 확보 등 기대

실기시험이 도입된 후 의료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건국대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22주년 학술세미나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실기시험부 손성호 부장은 '의사 실기시험 5주년 성과와 전망'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후 의료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실기시험 치룬 의사들 '긍정적 평가'…진정한 교육 목표 성과

국시원에서 임상현장의 간호사와 전공의,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기시험을 치른 의사들은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기술 ▲임상수기 능력 등의 분야에서 이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실기시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국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실기 항목들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최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의과대학에서도 이를 인정해 실기시험의 변화 추이를 놓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우리 의대도 지난 2014년 추가된 문항인 ▲자살 ▲성폭력, 수기문항에 ▲시력검사 ▲무균가운과 장갑 착용 ▲기관내흡인(endotracheal suction)도 모두 반영되어, 당 해에 교육받을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의대의 경우 국가고시 합격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습학생들이 병동에서 라이센스 없이 할 수 있는 술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3차병원의 특성상 접하기 힘든 일차 진료 기회를 통해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에 진정한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 실기시험은 어떻게 치루어질까?

❖ 2010년부터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2015년도 '제79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52일간 시행되었다.

2010년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후로 각 의과대학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의대에서도 이전까지 CPX컨소시움에서 제공받은 시나리오로 시험만 시행하던 형태에서, 2010년 6월부터 자체적으로 실기 수업을 도입하였다.

병원 소속의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2012년 10월부터 학생 실기 수업을 위해 SP교육을 시작하였고, OSCE실 5개와 CPX실 8개를 두고 교육 및 연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의대 실기교육…CPX+OSCE로 진행

의대 실기교육은 진료문항인 CPX와 술기문항인 OSCE 두 가

정맥채혈 술기실습

진료실습(CPX) 전 환자정보확인

진료실습(CPX) 모의 환자 병력 청취

지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진료수행평가)는 임상진료수행평가 시험으로, 각각의 주증상을 가지고 내원한 표준화 환자에게 10분 동안 진료 후 5분 동안 사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란 실제 환자와 비슷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의사 실기시험 중 진료수행시험에서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진료하는지를 평가한다.

문진을 통해 의심되는 진단의 범위를 좁힌 후 적절한 신체검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설명하고 치료방법, 기간, 예후를 설명하는 등의 환자교육까지가 진료과정에 포함된다.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진료실 밖에서 추정되는 진단명을 나열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계획 교육계획 등을 적는 사이 시험을 보게 되고, 모의 환자들은 학생들의 진료내용에 대해 평가목록을 체크하게 되는데,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알맞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과 진료태도까지 평가받는다.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객관적 구조 임상 시험)는 수기문항으로 혈압측정, 시력검사, 항문직장검사, 뇌신경기능검사, 상처드레싱 등등의 임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술기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평가 받게 된다.

각 술기 항목에 따라 맞춤 제작된 마네킹과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순서대로 술기를 완료해야 한다.

❖ 본격적 실기수업…본과 3,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실기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과 3, 4학년부터이다. 본과 1, 2학년 블록강의에서 관련 OSCE 항목들을 과목별로 일부하고 있고, 본과 2학년 임상의학입문 강의에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방법을 배워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임상수행평가라는 과목명으로 4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각 과의 실습 스케줄 없이 교육관에 모여 실기 교육을 받는다.

30분 동안 해당 CPX 진료에 관련된 숙지사항을 교수에게 교육받은 후 10명씩 조를 나누어 CPX 2문항을 수행하고, 그동안 다른 조 학생들은 OSCE 2문항을 교육받게 된다.

CPX/OSCE수행을 마친 후 다시 디브리핑룸으로 모여, CPX를 참관한 교수들의 피드백을 듣고 지난주에 학습했던 문항에 대한 채점표를 배부 받는데, 여기에는 각 항목별 점수뿐만 아니라 표준화 환자들의 피드백 내용까지 담겨있어,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알고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또 CPX 진료과정은 모두 녹화되어 CD로 보관되므로, 원할 경우 녹화내용을 보면서 자가평가도 가능하다.

1년에 두 번 학기말에 한 학기 동안 학습한 CPX/OSCE 전 문항이 시험범위가 되어 다시 한 번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받은 유인물들과 성적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고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OSCE실에서 준비된 시험 도구들로 반복 연습하여 능숙하게 술기 문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과 4학년 학생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6월부터 10-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CPX 2문항과 OSCE 2문항을 수행한다. 시험은 졸업시험에서 국가고시의 형태로 치르게 된다.

박상형 교수는"우리 의대는 앞으로도 실기시험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지식뿐 아니라 수기, 태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유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본 코너는 학생위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 의견 수렴 및 각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기 고

새로운 우리들의 보금자리 울산의대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홍보위원회 김남국 조교수

김남국 교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울산의대 홈페이지는 디지털시대의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정보화시대 유행을 좇아 홈페이지를 만든 많은 아날로그 기관들이 답습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가장 문제점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IT 기술의 성숙에 따라, 누구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향수이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IT혁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들어올때마다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현실은 당연히, 원내외 구성원들의 누구의 관심을 끌지못했다.

그나마, 울산의대 웹페이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부형 또는 수험생들에게 조차도 새로운 컨텐츠를 원하는 수준에 제공해주지 못할뿐더러, 입시, 홍보자료까지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학부형들로부터 원성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울산의대 주요 구성원 중 한축을 이루는 울산의대 교수님들도 울산의대 홈페이지 보다는 각 병원별로 제공되는 원내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또 더 중요한 구성원인 울산의대생들도 자체적으로 외부카페나 SNS사용 등은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울산의대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부자연스러워하였고, 따라서 대학에서 공지하는 게시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간신히 유지되는 것이 울산의대 입시생들의 홍보 및 입시Q&A 게시판이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울산의대 홈페이지를 서울아산병원내 서버에 둘 경우에는 대학 서버의 연구 업적 데이터베이스 공유 불가능하고, 외부에 둘때에는 병원 내의 인트라넷 정보를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울산의대 홍보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사용하지 않는-아마도 불필요해서-게시판 등을 축소 또는 대대적 통폐합을 통하고, 현재 트렌드인 모바일 환경에 잘 맞으며, 다양한 울

산의대 구성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홈페이지 및 울산의대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관을 기획하였고, 올 상반기를 목표로 홈페이지 회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다양한 대학 내에서 생산되고 소통되어야 하는 정보를 담당 직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울산의대 웹페이지에 들어오는 울산의대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만족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홍보 및 관계 설정이 부족했던 울산의대 기초 및 연구 전담교수들에 대한 연구실 및 성과소개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울산의대 설립된지 25년이 넘어서, 청년이 훌쩍 되어버린 울산의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전시관 또한 같이 구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새 웹페이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울산의대 구성원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전히 울산의대 홈페이지는 과거의 구습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

향후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

의대소식

의사의 길 入門…졸업 · 입학식 성료 '눈길'

학생, 학부모, 교수들 모두 축하와 감사 나눠

지난 2월 의과대학 졸업식과 입학식이 학부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22회 히포크라테스선서식 개최

지난 2월 16일(월) 오후 2시 의과대학 강당에서 학위수여식 및 제22회 히포크라테스선서식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울산대학교 이철 총장을 비롯해 송재관 학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최상일 의대 동창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을 포함해 의대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1부 의대 학위수여식에선 최우수상(박호영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이 진행되었다.

제 2부 히포크라테스선서식에서 송재관 학장은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이제부터 전문가의 길에 들어섰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였다.

❖ 의예과 입학식 및 간담회

지난 2월 24일(화) 오후 5시부터 의대 강당 및 15층 라운지에서는 의예과 입학식 및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송재관 학장의 식사와 신입생대표의 입학선서, 학장 및 교수협의회 장학금 전달, 보직교수 소개, 의과대학 투어 후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송 학장은 신입생들에게 "의대에서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기쁨을 함께 하고, 학생과 교수는 물론 학부모님들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신입생에 대한 첫 교육도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송 학장은 "어떤 사람이든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인사다"며 제대로 된 인사법을 교육하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너무나 뿌듯하고, 학장님의 첫 교육이 상당히 인상적이며,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학장은 "오늘이 있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부모 분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철 총장은 "신입생이나 졸업생이나 모두 앞으로 수련을 잘 하여 어떤 길을 가든 그 분야의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렇게 되려면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길에는 공짜도 없고, 지름길도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도 안 온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 대학 훌륭한 교수님들을 보아도 그냥 쉽게 어쩌다

의예과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세계적 교수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5년, 10년, 평생 부단히 노력하신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신입생들에게는 울산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다른 전공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것을, 졸업생들에게는 병원이나 연구소, 보건소에서 함께 일할 다른 대학 출신, 다른 직종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많이 배울 것을 권하였다.

이 총장은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도 우리 신입생이나 졸업생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 내도록 한 발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고 당부하였다. 또 "교수님들께는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 자주 만나주시고, 그들이 나름 잘 하려고 하면 칭찬을 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교수님들의 관심과 격려의 말 한 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수상자

수상명	성명
최우수상(의무부총장상)	박호영
우수상(학장상)	최지영
대한의사협회장상	임청수
서울아산병원장상	강준호
대한의학회장상	박현민
KAMC 이사장상	한아름
송파구의사회장상	신동준
동창회장상	조인경
봉사상(교수협의회장상)	형재원
공로상	전시열
모범상	정주환, 문준석
공로상(총동문회장상)	김민소
사회봉사상(울산광역시의회의장상)	김대환

제12회 대학원 의과학전공학위수여식 개최

제10회 임상전문간호학전공 학위수여기념식도

제 12회 대학원 의학과 의과학전공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4일(화) 오전 11시 의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석사 136명(의학 103명, 의과학 33명), 박사 49명 (의학 40명, 의과학 9명)을 대상으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또 지난 2월 16일(월) 오후 4시 30분 의대 강당에서는 제10회 임상전문간호학전공 학위수여기념식도 개최되었다.

졸업생 21명에 대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고, 우수논문상은 김신정(감염관리전문간호전공), 성적우수상은 김현아(종양전문간호전공), 손정숙(중환자전문간호학전공) 졸업생이 수상했다.

2015년 2월 대학원 졸업식 수상자

수상명	성명
최우수상(박사)	노의규
우 수 상(박사)	이지애
최우수상(석사)	김나영
우 수 상(석사)	이강구

김진호, 한덕종, 허수진 교수 정년 퇴임식

정부 포상, 공로패, 기념품 등 수상

왼쪽부터 김승후 기획부학장, 정훈용 교수협의회장, 이재담 의무부총장, 김진호 교수, 이철 총장, 한덕종 교수, 허수진 교수, 송재관 의과대학장, 김성윤 교무부학장, 채희동 학생부학장

의대 김진호, 한덕종, 허수진 교수가 지난 2월 26일(목) 의대 회의실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인생의 제2막을 출발하였다.

이번 퇴임식에는 이철 총장,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교수협의회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기획부학장 등의 주요 보직자와 축하를 위해 참석한 교수, 병원 직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정년을 맞이한 교수들에게는 정부포상(김진호, 한덕종 교수-옥조근정훈장/ 허수진 교수-대통령표창), 공로패(이사장, 학장)와 교수협의회 감사장, 기념품 등이 수여되었다.

또한 한덕종 교수와 허수진 교수는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철 총장은 식사를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대학과 학생교육에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울산의대 및 서울아산병원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여를 하시면서 각 과의 단단한 초석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는 보다 여유를 가지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재관 학장은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 헤어짐도 많아 가슴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며 "풍납동 캠퍼스의 큰 뼈대를 세운 세분이 동시에 퇴임하시게 되면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선배분들을 든든한 빽으로 생각했고, 선배님들이 특별한 문제없이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같이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동안의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잘 유지하여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대 발전을 위한 가차 없는 질책과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퇴임사를 통해 김진호 교수는 "이렇게 감사 인사말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읽은 책에서 '내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간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며 "제가 없어도 우주는 잘 돌아가고 사회도 잘 발전할 것이며, 우리 대학 및 병원도 잘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매듭을 잘 짓고, 더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종 교수는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여러 감정이 오간다"며 "특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한게 아쉽지만 최근 울산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열심히 한 결과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후배분들도 미리 정년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수진 교수는 "벌써 26년이나 지나게 되었다"며 "지난 26년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좀 더 학교나 병원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 소회를 밝힐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장, 의무부총장, 학장 등의 주요 보직자와 퇴직 교수 및 가족 등은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정년을 축하하는 별도의 만찬도 가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친목도모 및 학교생활 이해도 함양 도움

201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환영회, 교육지도/ 이하 OT)이 지난 2월 13일(금)~15일 (일) 청평 켄싱턴 리조트에서 의예과 신입생, 의예과 2학년, 의학과 1학년, 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OT에는 대학생활 소개(의예과 생활)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 교육팀이 '성공을 부르는 attitude' 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 안종준 예과과장, 이윤선 교무의학과장이 '성희로 예방교육 및 교과과정 소개' 를 주제로 한 교육을 하였다.

특히 장기자랑 및 실내게임, 퀴즈쇼 UUCM(학교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포스트(조별로 다른 미션을 수행해가며 협동심을 함양해 나가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즐거움과 학생들간 친목을 다진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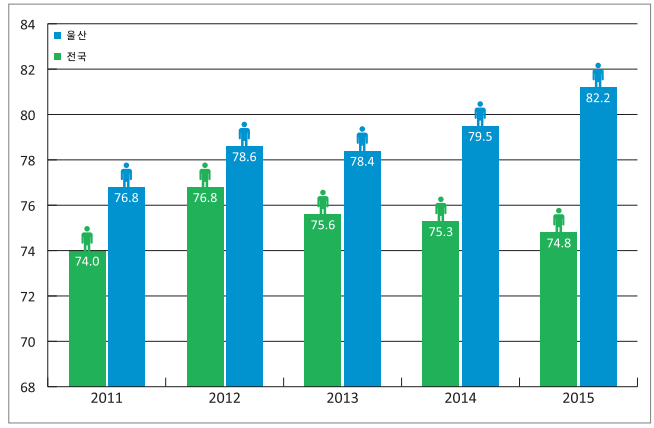
졸업생 의사국시시험 전체 의대 중 최상위

2015년 졸업생들의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성적의 평균이 82.2점으로 전체 의대 중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의대 평균인 74.8점과 많은 격차를 보였다.

졸업생들의 국시 성적은 2013년 78.4점, 2014년 79.5점, 2015년 82.2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매년 하락하고 있는 전체 의대 평균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후반부터 진행해온 교과과정 개편과 개선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15년 졸업생 중 대다수(28명)는 서울아산병원 수련의로 합격하였으며, 그 외 울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공중보건의,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등의 진로를 선택하였다.

의사국가시험 성적 변화 추이(최근 5년)



White Coat Ceremony 개최

지난 3월 6일(금) 오후 5시부터 의과대학 강당에서 재학생, 학부모, 의대 보직교수, 학생지도교수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White Coat Ceremony)를 개최하였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학장의 인사 후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가운을 입혀주는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가 이어졌다.

이후 융합연구관 15층 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대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의지를 다졌다.

한편 화이트 코트 세리모니란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에 교수 및 부모님들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선서를 하는 착복식이다.

표준화 환자의 날 행사 개최

지난 1월 14일(수) 오후 5시부터 융합연구관 15층 아산홀에서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환자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의과대학 3, 4 학년 진료실습(CPX)에 참여한 표준화환자(SP)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표준화환자상은 주석제, 최계숙 SP가, 베스트 열정상에 한동학, 베스트 연기상에 윤미애 SP가 수상하였다.

우리 의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학생들이 진료실습을 하고 있다.

한편 표준화 환자는 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될 만큼 아픈 증상과 감정상태를 연기할 수 있고, 어떤 학생 의사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진료실습에서 모의환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약 70명이 활동중이며, 표준화환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수시로 표준화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표준화환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의과대학에 다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기타 문의 : 시뮬레이션 센터(전화 : 02-3010-1017).

2015년 1학기 신임교수 세미나 개최

지난 3월 4일~5일 양평현대종합연수원에서 신임교수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2015년 1학기 신임 교수 14명과 의대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보직교수 소개 ▲임명장 수여식 및 자기소개 ▲교원인사제도 소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개(의대교수학습시스템) ▲연구지원사업 소개 ▲의대발전기금 운영현황 ▲특강(Teaching&Learning) 이후 만찬 등으로 교류를 나누었다.

둘째날은 ▲특강(학습성과와 수업계획서) ▲의학도서관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2015년 1학기 신임교수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교실명	직급	성명	사진	출신교 (졸업년도)
서울아산병원	1	영상의학	교 수	백정환		한양대 (1989)
	2	내과학(소화기)	부교수	송태준		한양대 (2000)
	3	내과학(종양)	부교수	박숙련		서울대 (1998)
	4	신경과학	부교수	임영민		이화여대 (1997)
	5	외과학	부교수	박인자		부산대 (1998)
	6	이비인후과학	부교수	이윤세		울산대 (2000)
	7	응급의학	부교수	서동우		울산대 (2000)

	연번	교실명	직급	성명	사진	출신교 (졸업년도)
서울아산병원	8	내과학(류마티스)	조교수	홍석찬		인제대 (2003)
	9	재활의학	조교수	김 원		서울대 (2004)
	10	마취통증의학	조교수	김성훈		한양대 (2005)
	11	병리학	조교수	송준선		경북대 (2003)
	12	영상의학	조교수	이상민		서울대 (2004)
울산대학교병원	13	외과학	조교수	경규혁		강원대 (2004)
	14	외과학	조교수	박형우		전남대 (2003)

의대 일정표

4월 1일(수)	의대 승진교수 연수
4월 3일(금)	울산대학교 병원 의예과 1학년 간담회
4월 13일(월)	대학원 학위논문 1심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4월 14일(화)	울산대학교 병원 4학년 학생실습 간담회
4월 15일(수), 21일(화)	CPX/OSCE 담당교수 워크숍
4월 17일(금)	대학원 박사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신청
4월 20일(월)~24일(금)	중간고사(의예과, 대학원)
4월 27일(월)~29일(수)	학위청구논문 접수(종심)
4월 22일(수)	강릉아산병원 4학년 학생 실습 간담회
4월 27일(월)	주임교수 회의
5월 미정	학생 체육대회

5월 18일(월)	주임교수 회의(예정)
5월 28일(목)~30일(토)	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여수)
6월 4일(목)	울산대학교병원 3학년 학생실습 간담회
6월 5일(금)	강릉아산병원 3학년 학생 실습 간담회
6월 9일(화)	수업계획서 작성 및 TBL 워크숍 (강릉아산병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6월 15일(월)~19일(금)	기말고사(의예과, 대학원)
6월 16일(화)	수업계획서 작성 및 TBL 워크숍 (울산대학교병원)
6월 22일(월)	주임교수 회의(예정) 의예과 2학년 하버드 연수 시작 (~8월 7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우리 의대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울산의대의 지난 26년과 관련된 기록물을 모집합니다.
울산의대 홈페이지에 오픈될 디지털전시관에 보관하여 구성원을 포함한 울산의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과 지나간 시간들속에 남겨진 울산의대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련 기록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　　상: 울산의대를 아시는 모든 분
기　　한: 연중 상시
모집 내용: 울산의대 관련 모든 기록물(사진, 영상, 책자 등)
선　　정: 울산의대 홍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 여부 결정
담 당 자: 울산의대 교학행정국 이정현, 02-3010-4211, jaylee0131@ulsan.ac.kr